

# 전주시, 추경예산 1627억원 증액 편성

### 코로나19 위기 극복·민생경제 회복 등 위해 예산안 편성·심의 요청

전주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총 1627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코로나19로 시름에 빠진 시민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코로나19 위기극복 예산 1131억 원 △전주시다량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107억 원 △방역체계 보강 35억 원 등 1627억 원을 증액한 2조432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주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

먼저 시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민

들의 생활 안정에 적극 대응하고 침체된 지역의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678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90억 원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전북도 재난지원금 150억 원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15억 원을 각각 반영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으로 107억 원을 추가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14억7000만 원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16억 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2억 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1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밖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100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5억 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303억 원 △전주교도소 이전사업 보상 339억 원 등이 추가로 편성됐다.

시는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803억 원, 지방교부세 171억 원, 조정교부금 64억 원, 전년도 잉여금 303억 원, 예비비 147억 원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확보해 마련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전주시의회 제38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황관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코로나19 급격한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했다”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빠른 시일 내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추경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확진 인정

### 전주시보건소, 한시적으로 동네 병의원서 즉시 의료처방 실시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확진자의 조기 치료와 신속한 관리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도 확진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인

경우 바로 진료·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바로 먹는 치료제 처방도 가능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주시역 8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126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가까운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검사한 병원에서 주의사항과 격리 등을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60대 이상 고위험군은 먹는 치료제를 조기 처방해 위중증을 방지하고,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전문의의 검사와 진찰을 통해

신속한 치료도 받을 수 있어 보다 안전한 확진자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시 즉시 의료처방을 실시하고 격리와 재택치료를 진행해야 환자 관리 공백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을 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의 진료와 치료를 받기를 바란다”면서 “당분간 확진자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재택치료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유쾌한 인문학 프로그램 진행

### ‘인문 고전 산책’ 총 24강 운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기 위해 올해 유쾌한 인문학 프로그램으로 ‘인문 고전 산책’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1탄 ‘노자 도덕경으로 읽는 동북아시아’ △2탄 ‘조선의 중대사건과 범죄’ △3탄 ‘여섯 가지 키워드로 읽는 인도신화’ △4탄 ‘그리스 비극읽기’의 4탄 총 24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유쾌한 인문학은 지역인문자원과 연계해 대학교 공동으로 추진한다.

유쾌한 인문학 1탄 노자 도덕경으로 읽는 동북아시아는 오는 22일 개강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전주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 시는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기획단을 꾸리고 강좌를 기획했다. 대학생 참가단은 모니터링에 참가하고 강의 내용을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시는 평소 인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었으나 아이들 때문에 주저하는 시민들을 위해 동시간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인문학’도 병행 운영한다.

어린이 인문학 1탄은 ‘생태감정 느끼기’를 주제로 내 마음의 그림책 회원으로 구성된 강사들이 그림책 읽어 주기와 창의체험 활동 함께 한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인문학은 ‘인문 고전 산책’이라는 주제로 시민들이 쉽게 고전을 이해하는 과정으로 마련했다”면서 “365일 삶과 향기가 넘치는 인문도시 전주를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쾌한 인문학은 인문학과 고전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3만원(어린이 인문학은 1만원)이다. 신청은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 또는 전화(063-281-5367)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완산구,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노후경유차 1만2444대에 6억6000만원 부과

완산구청(구청장 김병수)은 노후경유차 1만2444대에 환경개선부담금 6억6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2012년 3월 이전 출고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지난 반기의 사용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3월에 고지된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은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차등 산정되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자동입출금기 및 금융결제원 인터넷으로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체납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환경개선 용도로 쓰인다.

한편,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한 자동차(1대) 또는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매년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 혜택을 받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완산구청 환경위생과(063-220-539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제28회 전국한지공예대전’ 포스터.

## 전국한지공예대전 출품작 공모

### 전통·현대·기타 총 3개 부문... 5월 5일 개막 당일 시상

전주시와 전주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대표장 김선태), 전국한지공예대전 운영위원회(위원장 유봉희, 이하 운영위)는 제28회 전주한지문화축제와 함께 개최되는 ‘제28회 전국한지공예대전’의 출품작을 오는 4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전국한지공예대전은 공예를 통한 한지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쓸모를 탐구하고, 한지공예 문화의 보존·계승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통(지호, 지승, 색지, 지장, 지하, 부채, 수록지 등) △현대(한지조형, 의상, 닥종이인형, 한지그림, 한지부조, 한지등, 낙화등) △기타 부문(문화상품, 민화를 응용한 한지공예, 창작한지, 응용한지 등)의 총 3개 부문에 걸쳐 공모를 한다.

응모 자격은 국내의 제한 없이 주어지며,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5일 축제 개막식 당일 시상할 계획이다. 영예의 대상에게는 국회의장상과 함께 상금 1000만원이 수여되며 등 총 3150만원의 시상금도 지급된다.

입상작은 전주한지문화축제가 열리는 5월 한 달간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전시 공개된다.

특히 운영위는 올해 대전에서 전국 우수 공예인을 발굴하기 위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의 상금을 키우고, 장려상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늘렸다.

또한 ‘올해의 초대작가’도 선정해 참여 작가의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유봉희 전국한지공예대전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작품 활동이나 작업이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지 공예의 명맥을 이어주는 작가들에게 전국한지공예대전은 한지와 삶을 이어주는 무대”라며 “이번 대전을 통해 전국의 한지공예작가의 역량을 키우고 더불어 한지 문화와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유망무한한 대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28회 전국한지공예대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한지문화축제 누리집(jhanji.or.kr)을 참고하거나, 사무처(063-271-250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